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꿈꾸는 자에게 도전은 새로운 기회”



이 수 영

- 1978년 3월 생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I. 글을 쓰게 된 동기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건조합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아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이 풀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실내에 에어컨이 없으면 푹푹 찌는 아스팔트위에서 있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혀옵니다. 이 불볕 여름의 한가운데, 2012년 8월 14일까지 연수원은 자율학습 기간으로, 쉽게 말하면 방학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대다수의 연수생들은 연수원 도서관이나 연수원 후문 근처의 사설독서실에서 그 전의 고시생시절처럼 이전 기수의 기록들과 판례, 교과서들로 1년차 2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만큼 뜨거운 연수생들의 치열함이 무더위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려지는 연수원의 현재입니다. 정중동(靜中動). 아마 신림동 고시촌의 풍경도 이와 사뭇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고시계의 원고청탁을 받고서 제가 과연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시공부 시절 고시잡지에 실린 사법연수생의 합격기를 읽으며 그 인생역정에 대한 존경심도 느끼고 고시준비 당시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실질적 공부방법론 등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경험이 있지만, 막상 제가 이 글을 쓰려고 할 땐 누군가에게 제 살아온 날들의 일부를 수험기라는 명목으로 내비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는 분명 부족함이 많

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먼저, 법조인의 꿈을 꾸며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서 고시원이나 독서실에 앉아서 책장을 넘기고 계속 고시생 분들이 부족함이 많은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절,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나름의 원칙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고 타성에 젖은 현재의 저를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준비 및 최종 합격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II. 과 정

### 1. 사법시험의 꿈, 감히 꾸어도 되는 것인가 - 사법시험 도전에 앞서

가수 이적과 김동률로 이루어진 그룹 '카니발'의 유명한 노래 '거위의 꿈'은 그 가사를 듣고 있노라면 이제는 절로 감정이입이 되어 울컥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이전에 그 노래에 진심으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성공한 사람들이나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뿐 한 번도 구체적 꿈을 가져본 적도, 그 꿈을 실현하려 노력해 본 경험도 없었던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학사편입하면서 법학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즐기며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될 무렵인 2005년, 당시 민법교수이셨던 이병준 교수님께서 제게 사법시

험에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법시험은 언감생심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이후로도 법학공부는 참 재미있는 학문 이었고, 법 관련 일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분야였습니다.

### 2.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학사편입을 했을 당시가 26살이었고, 사법시험을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거의 30살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저는 사법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어떤 교재를 보아야 하는지, 학원수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었던 상태라 막연하게 사법시험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자칫 무모한 모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 친제들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하였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왜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법공부가 그냥 재미있고 좋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려운 도전을 온 힘을 다해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들려온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고,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떠안을 각오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

음 ‘꿈’이라는 것을 꾸어 보았습니다.

### 3.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 남시를 하려면 물고기가 되어 보아야 한다.

뜻을 같이 하는 학교 친구와 함께 우선 수험 정보를 모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저나 그 친구 모두 집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고 준비에 매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법시험이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유형에 대한 대비는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들을 풀어 교과서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은 합격수기를 통해 합격자들의 공부방법론을 벤치마킹하되, 시험 당일의 최종적으로 염두해 두고 순환의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출문제와 출제위원교수님들의 해설은 1, 2차 통틀어 매 순환 및 마지막 교과서 통독과정에서 강약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합격자들의 공부방법론 역시 일정 범위에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르고, 다른 부분은 각자의 공부방법과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 4. 원칙을 세우기

-운동을 철저히 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자.

사법시험은 1차든 2차든 교과서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판

례들이 과목별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 순환을 정하는 방식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순환이 지날 때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시험 막판 1달여를 앞두고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1차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일주일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최소 8시간 이상씩 공부하되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반드시 쉬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주말마다 학교를 벗어나 남산에 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대략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모하는 남산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는 맥주 한 캔 들고 해질녘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슴 가득 기운을 불어넣고 내려오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머리도 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밤마다 집근처의 경희대학교 교정을 약 1시간정도 산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 직전 주말까지 지켜졌습니다. 다만 2차 시험은 신림동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주말에 관악산에 갈 때가 있었을

뿐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과목의 매 순환마다 취약부분을 적어두자.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이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은 그 다음에 거의 반복적으로 틀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적으로 고치기 위해 과목의 매 순환마다 약한 부분을 수첩에 적어 두고 그 과목의 다음 순환에 앞서 수첩에 적어놓은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교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순환이 진행될수록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험에 임박해서는 각 과목별 취약점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 효과적이었습니다.

### 5. 그대로 받아들이자 - 시험 준비 과정에서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 대한, 특히 힘든 상황에서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노력 없이도 타고나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범조인의 꿈을 꾸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도 막상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곤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1차 시험에 연거푸 2번 떨어지면서 그 불안감은 점점 농도가 짙어져 불면증으로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공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인생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순간순간 비참함이 물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불리해지고 오히려 힘을 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의 실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만들어가는 현재가 결국 미래를 만들게 되어 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자. 현재는 과거의 시점에서는 미래였다. 그때도 불안했고 현재도 불안하며 미래도 불안감으로 느껴진다면 냉철하고 치열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사법시험은 성실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런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자.'는 결론에 이른 뒤에는 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 그 자체만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계속적 자기암시를 통해 결국 2차 시험을 치르는 순간까지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Ⅲ. 공부 방법 - 절대 양을 늘리지 말자.

#### 1. 제1차 시험

각 과목의 기본교재, 기출문제집 및 최신 판례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민법은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강의와 2006년판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이해영 변호사님의 민법기출 문제집으로 정하였습니다. 형법은 송헌철 강사님의 교재와 이재상 교수님의 객관식문제집, 헌법은 정회철 변호사님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으로 하였습니다. 판례는 교과서 수록 외 최근 3개년 판례를 보았고, 헌법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는 도중에 바꾸지 않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교과서 순서대로 편제되어 있어 진도별 대응으로 할 수 있었고, 답을 표시 하지 않고 푸는 방식으로 매 순환마다 교재 회독 수만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다만 헌법은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따로 구해 보완하였고, 헌법판례는 반드시 전문을 읽어 교재에 쟁점별로 흠어져있는 판례 조각들로 인한 혼란을 줄였습니다. 시험 마지막에는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되 미리 표시한 경중을 기준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하였습니다.

1차 시험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원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지만, 체계적 준비나 페이스 유지, 정보수집 등 수험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수강하기를 권하지만 1차 합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제2차 시험

역시 기본서와 사례집, 기출문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정회철 변호사님의 기본서와 사례집, 행정법은 홍정선 교수님의 기본서와 김기홍 강사님의 CASE, 상법은 이해영 변호사님의 상법강론과 사례집, 다만 어음·수표법 및 보험법은 최준선 교수님의 판례100선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민법은 노재호 판사님의 민법교안, 형법은 송헌철 강사님의 형법강의와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연습,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의 민사소송법과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님의 기본서와 형사소송법연습으로 정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각 과목의 순환마다 복사집에서 최근 10년간 사시와 행시 기출문제 및 출제위원해설을 병행해서 보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출제위원 해설을 통해 터득한 적도 있었고, 교재를 읽을 때 쟁점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민법교안 사례와 기출문제, 학원의 순환문제를 구해 오전 8시부터 매일 2시간 정도 답안작성과 자체 침삭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민법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법 역시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연습 사례집을 반복해서 보았는데, 내용이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의 답안작성은 반드시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소위 '답안지 일본주의'라고 하여, 2차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에 현출된 것만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험 당일 시간 안배와 구성을 고민하지 않고 써내려 갈 수 있는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양을 늘리지 말고, 반드시 법전을 항상 옆에 펴놓고 조문을 읽은 다음 교과서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한 자 더 보려고 하기 보다는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 IV. 마치며

누군가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묘사하는 연수원의 생활 속에서 문득, 1차 시험을 앞둔 고시생 시절에 일부러 들러본 연수원 후문 앞에서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어 물어 찾아온 마두역에 내려 검찰청과 교양지원을 지나 다다른 연수원 후문 앞. 죄지은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심리적 위축감에 심하게 요동치는 심장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 앞에 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에 멀리 보

이는 해태상만 바라보다 꼭 정식으로 들어오겠노라고 다짐하며 뒤돌아 오던 차가운 겨울날의 기억.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의 저는 그랬습니다.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꿈을 꾸고, 고생활 준비를 하고 위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잘 덜렁대서 실수도 많은 제가 여기까지 온데는 결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임했고, 차곡차곡 준비하였으며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도 고대하셨을, 200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34년간 부부 지정으로 살아오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철없는 딸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주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늘 옆에 있어준 언니 이수복, 동생 이수정, 정영수 변호사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균성 명예교수님, 이병준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성희, 장은영, 당신들은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 이야기를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꼭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